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문정명 바오로(하단성당 ·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입 당 송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
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나

화 답 송 시편 89(88),2-3.16-17.18-19 (© 27)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1.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
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2.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
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
서나이다. ◎

3.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제2독서 로마서 6,3-4.8-11

복음 환호송 1베드 2,9 참조

◎ 알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
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복 음 마태오 10,37-42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
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실시한 2차 헌금은 전액 교황청으로 보내집니다.



교황 주일을 지내며

퀴바디스 도미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피신을 뉘우치며 로마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뽑혔던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라크를 방문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순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버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아버지, 이슬람인들에게도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이라크 안에서 그리스

도인들과 평화롭게 살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와 테러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목 방문을 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올해 성유 축성 미사 강론에서 주교님께서는, 교황님께서 하신 사제와 신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셨습니다. 즉, 양의 낚시를 잃지 않고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하느님과 주교, 동료사제와 하느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참 사제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황님께서 현대 교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의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참 사제의 길을 제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삼중관을 쓰신 교황님의 화려함의 내면에는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하느님 백성에 대한 측은한 시선으로 가득 찬 교황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내미는 교황님의 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고자 전 세계 교회는 정성되이 봉헌의 대열에 함께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은 로마의 주교요, 바티칸 시국의 원수이며, 세계 주교단의 단장으로 현세 교회의 통괄적 사목자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직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황 주일을 지내며 우리는 모두 교황님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아멘.



임 영 민
안드레아 신부
삼계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응답합니다.



Chang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코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서부산) FM
101.1MHz 93.7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23:50

7.3(월)~4(화)

임영민 신부(삼계성당 주임)

7.5(수)~8(토)

이원용 신부(청소년사목국장)



진행 :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

[빈아나가 틈틈이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1편] 출연: 김승준 아타나시오

전국 각지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삶과 신앙생활 스토리를 찬찬히 귀 기울여 듣고, 자본주의 현생과 신앙적 가치관 사이의 '빈틈사이'를 이 시대의 우리 가톨릭 청년들은 어떻게 담아내며 살아가는지! 그 녹진한 마음을 여러분과도 나눠봅니다.

진로 선택과 삶의 방향 잡기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뭐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의 직업을 그 사람 자체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일을 그의 인격이나 인생, 삶의 질과 따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직업을 왜, 어떻게 선택했고 과정은 어떠했는가는 그의 인격이자 인생궤적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생명과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상과 관계 맺고 사니까요. 그러기에 ‘진로선택’이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선택, 몰입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들은 대개 젊은 시절 주어지고 학창 시절에 열려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긴 인생 여정이 달라지기에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온갖 훈수와 충고를 듭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살게 되었구요.

이런 때에,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직업이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명으로 주신 ‘나다움’과 전혀 안 맞는 옷이라면요.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직업인이 되어도, 그 삶은 내 발에 맞지 않는, 걸을수록 아픈 신발을 신고 고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자의 고유성과 특별함은 부정할 채, 똑같은 꿈, 진로와 목표를 정해 특정 깃발을 먼저 취하려 합니다. 부모들은 너도나도 남들이 다 좋다는 직업을 자녀가 갖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이러한 기성세대의 가치관 때문에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아진 건 아닐까요? ‘은둔형 외톨이’, ‘게임중독’ 하며 젊은이들을 걱정하지만, 이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이끈 어른들의 탓이자 그들의 상처 입은 모습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러 시도와 경험을 할 시간과 기회는 안 주고 같은 잣대로 채점된 점수

올리기와 우등생 되기라는 미명아래 다양한 자기탐색 시도는 막은 채, 제대로 된 진로선택을 차단해 왔음을 반성하면서요. 학교성적은 사실 삶의 방향 선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진로 선택이 자신에게 맞는 일의 발견이라면, 이에 모든 과목의 높은 점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직업을 가진 여러 개의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기에 ‘난 어떤 것도 잘하지 못했어.’에서 ‘내가 아는 건 수학, 영어점수가 어떠했다는 사실 뿐이야. 뭘 잘할지는 그 성적만으로는 알 수 없어.’라고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명문대학 졸업, 선망의 취업만이 멋진 성공이고 못 이루면 실패라는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한 대체 불가의 독특한 꽃들입니다. 다른 역량과 색깔, 모습, 쓰임이 있어 피우지 못할 꽃은 없습니다. 다만 꽃자리, 모습, 색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삶에 동기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어릴 적 더 좋아한, 더 끌리고 행복했던 것들)에 귀 기울이며 잠재력과 적성을 발견하고자 애쓰면서, 자기만의 ‘보폭’으로 정진하는 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패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도란 늘 실패를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실패란 다른 말로 하면 성공으로 가는 팁이니, 연속되는 실패들에 혹 의기소침해져도, 실패란 지금 자신의 상태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로 여겨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방향은 더 선명해지고, 능력과 내면은 강해져 결국 도움 주며 감사받는 일꾼이 되게 하니까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여, 잠재력을 믿고, 무기력을 털어내고 더 시도하고 견디며 부지런히 고유한 자기 가치와 인생과업을 찾고 매진해 갑시다.

From. 김지영 마틸다(우동성당)



주님 사랑의 실천

2006년,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언어척각치료학과가 개설되고 대학 내에 <언어치료실>을 열어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곳 주보에 실었었다. 그리고 15년이 훌쩍 지났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대강당은 부산 교구의 각종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몇 년 전에 조아영 마리아 청능사는 가톨릭학생회 일도 열심히 하며 언어치료사와 청능사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했다. 이제는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능사로 일을 하지만 여전히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학 강당에서 행사가 열릴 때면 어김없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옛 스승을 찾는다. 교구 행사에 참석하려고 바쁘게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점심도 거르고 찾아올 때는 연구실 냉장고만 으로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이제 스승과 제자 간

의 관계를 넘어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동료가 되었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관계를 송고한 '전문직 봉사자'로 주님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 주고 있다.

대학에 와서 강의하면서 학생을 대할 때 나만의 편견이 있다. 10여 년 전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들어 오겠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 잘 눈여겨보지 않아 성적을 제외하고는 딱히 평가할 만한 잣대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밀린 일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지나 오륜대순교자성지로 향하고 있었다.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학생들을 통솔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다름 아닌 내 연구실에 들어오겠다는 바로 그 학생이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졸업생은 내 연구실에서 성공적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고, 이제는

대전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1급 언어치료사로 일하며,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간 동안 경력 단절도 없이, 그 과정이 자신의 경력치를 한층 상승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며 가끔 안부를 전한다.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양성된 언어치료사와 청능사가 사람과 사회가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며 일터에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당신 보시기에 좋은 언어치료사와 청능사를 양성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를 세우는 배움터를 열어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 기도를 바친다.

이 희 란 에스텔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척각치료학과 교수



미사 거행을 위해 제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초는 제대 위에 놓아도 되나요?

제대에는 흰색 보가 적어도 하나는 덮여 있어야 합니다.(미사총지침 117항) 입당행렬 때 부제나 독서자가 들고 들어온 '복음집'은 제대 위에 모셔둡니다.(미사총지침 122항) 입당행렬 때 '복음집'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미리 제대 위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미사총지침 117항참조) 복음환호송을 노래할 때 복음집을 제대에서 독서대로 모셔갑니다. 이처럼 시작예식과 말씀전례 동안 제대는 원칙적으로 비워져 있으며 오직 복음집만 모셔둡니다. 제대 위에 홀로 놓인 복음집을 바라보는 회중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보편지향기도가 끝나고 성찬전례가 시작되어 제대에 예물을 준비할 때 비로소 성체포, 성작수건, 성작, 성작덜개, 미사경본을 제대로 가져옵니다.(미사총지침 139항)

초는 어디에 놓을까요? 초를 꽂아두는 "촛대는 제대와 제

단의 구조를 고려하여 제대 위나 가까이에 놓아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미사총지침 307항)합니다. 제대 위에 초를 놓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제단이 충분히 넓다면 제대 위보다는 제대 곁에 촛대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이 말씀전례 동안 제대 위에 모셔둔 복음집을 잘 볼 수 있고 또 성찬전례 동안 제대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행위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미사총지침 307항)

제대 위에는 오직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만 두어야 합니다. "마이크도 신중하게 놓아야 한다."(미사총지침 306항)고 말합니다. 회중의 시선을 배려하여, 제대 위에 잡다한 물건들(물수건, 물컵, 손수건, 휴지, 매일미사책, 프린트물 등)을 어지럽게 올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전례위원회



교구 소식

사제단 피정

*장소 : 정하상바로영성관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차 : 5월 15일(월)~5월 19일(금), 주제 : 포콜라레영성



3차 : 5월 22일(월)~5월 26일(금), 주제 : 생태환경영성



4차 : 5월 29일(월)~6월 2일(금), 주제 : 교구사제영성



5차 : 6월 5일(월)~6월 9일(금), 주제 : 동반사목영성



6차 : 6월 12일(월)~6월 16일(금), 주제 : 렉시오디비나



대연 6월 11일(일) / 주임 : 김해원 신부, 회장 : 박승철 베드로



양산 6월 18일(일) / 주임 : 석판홍 신부, 회장 : 하명수 에드문드



정관 6월 18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주임 : 권순호 신부, 회장 : 최흥주 바오로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3.7.2.
정인식
(알베르토)
신부님



2005.7.4.
유창호
(토마)
신부님

세레나의
생활성가
선물

나는 행복합니다

지난 5월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언급하시면서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여 년 전 한국에는 사제들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받은 평신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성인의 체험담을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박서은 엘리사벳 글/곡

성가 듣기



도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나의 모든 의지를 하느님께 맡기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가는 교황 주일을 맞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떠올리며 고른 곡입니다. 2005년 교황님께서 선종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도 행복하세요’를 묵상한 곡으로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겹고 지칠 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그 힘을 입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해랑 세레나(서면성당)



사랑의 편지

(마태 10,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게재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읍시다. *1년간 참여한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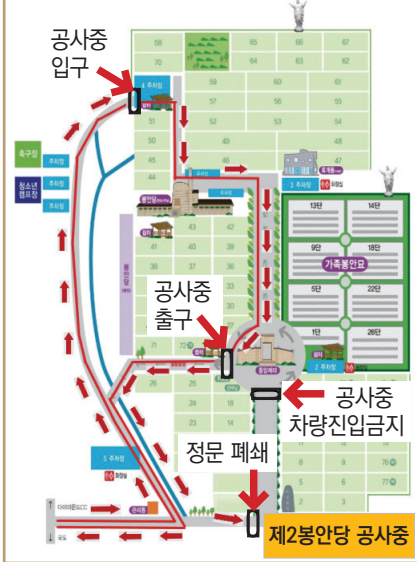
· 7.7(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5층 사랑실 / 문의: 629-8760(성소국)

청소년사목국 청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 만 18세~만 35세 이하의 신자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대학청년부-공지사항 참조) / 신청마감 : 7.7(금) 오디션 : 7.8(토) 11:00(일정조율 가능)
문의 : 629-8784

하늘공원 차량 우회 안내

제2봉안당 공사로 인해 정문 출입문은 공사마감 때까지 폐쇄하며 후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혼인강좌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정성당, 울산대리구청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 (catholic-marry.or.kr)
비고 :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대 리 구

한국의 100년 성당 사진전

· 6.30(금)~7.11(화) *무료관람
· 무가갤러리(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문의 : (052)201-6505

본 당

이기대성당 성요셉성가단 제6회 정기발표회

· 7.16(일) 17:00 · 이기대성당 성전
지휘 : 조현수 / 반주 : 유나겸
단장 : 010-3824-0512(조숙희)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 7월 후원회미사

김해 : 7.3(일) 11:00 임호성당
문의 : 782-0765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7.4(화) 11:00 · 중앙성당 대성전
주례 : 최재현 지도신부 / 문의 : 466-2290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7.10(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7.11(화) 10:00 아음성당
부산 : 7.13(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 7.10(월) 14: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41-3239(비아희)

부산 체니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7.18(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니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김기영 신부 / 문의 : 010-8879-2376

파티마의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 7월 첫 금요일 미사
· 7.7(금) 21:00 (미사 22:00)
- 7월 목주100단 기도회
· 7.3, 10, 17, 24(월) 09:30~
- 7월 평금요일철야 기도회
· 7.14, 21, 28(금) 21:00
22:00 미사 / 익일 04:00 미사
문의 : 646-3746, 010-6764-3746

Senda(센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7.14(금) 19:30 · 서면성당 센다
출연 : 주와 / 주제 : 위로
진행 : 이재석 신부 / 문의 : 809-0642

로사리오의 집

- 하느님의 자비신심 필피절
·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7.8(토), 8.19(토), 9.9(토), 10.14(토), 11.11(토)
-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모임 : 매주 금요일
13:00 기도, 14:00 미사, 15:00 자비의 시간 기도
문의 : 010-7155-3498,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물류팀(남) 구합

자격 : PC가능(한글), 1종보통면허증소지
서류 : 본당신부님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464-8495~6
E-mail: woori-pusan@hanmail.net

(주) 씨피여행사 8/16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KE 10/16 스페인, 포르투갈 14일 LH 11/6 베트남 다낭 순례 5일 LJ 010-3837-6434	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문재현, 이재형, 박기태(베드로) 3명 진료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지하철역 온천정역 1번 출구 150m	협성주단·한복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	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	삼성내과 MR영상의학과 최영식(전, 고신대 병원장) "갑상선 당뇨센터 오픈" 전문의 14명 (여의사 5명) 박인호(루카),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 출구 208-5566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 분야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옥우빌딩 2층	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타)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주름개선	안락성모안과 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 황반변성, 녹내장, 드림렌즈 원장 장현덕(바오로) 525-5656 안락로터리 부산은행 4층(충렬사역 2번출구)	안드레아여행사 제주도 1. 제주도 성지순례(섬지역 포함) 토종 2. 해외 성지순례(해외지사) 진행 여행사 3. 맞춤형 피정 프로그램 30년 4. 은퇴사제와 사랑의 길 010-3119-6886 010-2112-5428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 수요일 치유미사
- 7.5(수) 13:00~15:00
- 금요일 밤미사
- 7.7(금) 20:00~22:30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7.10(월) 10:30~16:00
- 상담봉사자 교육
- 7.8(토) 15:00~9(일) 17:00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 목요일 밤미사
- 7.6(목) 20:00~22:30
- 강의: 김정훈 형제(부산교구 젊은이 봉사자)

농아인선교회 7월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

- 기초반 개강: 7.19(수) 19:00 주 2회(수, 금) 90분
- 18회 과정 /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 기초심화반 개강: 7.19(수) 19:00 주 1회(수) 120분
- 10회 과정 /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 중급반 개강: 7.18(화) 19:00 주 1회(화) 120분
- 10회 과정 / 수강료: 6만원(교재비 별도)
- 고급반 개강: 7.18(화) 19:00 주 1회(화) 120분
- 10회 과정 /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 ※ 수강 인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 ※ 7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가능.
- 문의: 010-9671-0801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 대상: 개인간병 경력자(65세 미만)
-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개인간병사.
- 문의: 933-7042, 010-3572-7045

김범우순교자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 7.8(토) 09:00 삼당진역 출발, 식사 주문 가능
- 문의: (055)356-7030(김범우순교자성지)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연중 제13주일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프르실로 참가신청

- ※ 신청서 상시 접수(각 차수 35명 선착순)
- 440차(자매): 7.27(목)~30(일)
- 441차(형제): 8.17(목)~20(일)
- 문의: (055)388-5734 또는 본당 간사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성인)
- 문의: 519-0490(화~금 13:30~16:30)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7.7(금) 10:30 · 남천성당
- 문의: 582-1774, 010-9081-1743

알로이시오기지1968 <친교의 기지데이>

- 8.12(토) 09:00~17:00
- 대상: 각 성당 주일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
- 내용: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신앙학교 프로그램 (주일학교 활동으로 추천) / 문의: 250-890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 성경완독: 7.7(금)~15(토), 8.11(금)~19(토)
- 효소단식: 7.20(목)~23(일), 8.3(목)~6(일)
-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I: 7.28(금)~30(일)
- 문의: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 중고등부: 8.7(월)~9(수) 경남 산청 성심원
- 일반부: 8.11(금)~13(일)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
- 문의: 010-6608-3217(성소담당 신부) 선착순 모집

성모승천 전례피정

- 8.13(일) 16:30~15(화) 13:30 ·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25만원(농협 301-0087-0776-61)
-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원하는 날(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성베네티도회 왜관수도원	7.8(토) 14:00-9(일) 13:00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문자 문의)

예수성심친교회(재속회) 회원 모집 및

- 예수성심 월피정 참가자 모집**
- 7.11(화) 10:00~15:00 · 장전동 성심영성센터 성전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6,8월은 없음)
- 참가비: 1만원(중식 제공)
- 피정지도: 신현철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 문의: 010-4793-469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 7.9(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 7.22~24, 7.28~30(우도), 8.1~3(우도), 8.5~8, 8.11~14, 8.19~21, 8.27~29, 10.1~3
-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 문의: (02)773-1455, (064)796-4182
- 제주성이시돌 피정센터(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피정
- 어름특별피정(우도자유일정포함): 7.29~31, 8.4~6, 8.9~12
- 자연순례: 8.26~28, 9.3~5, 9.16~18
- 성지순례(추자도): 9.10~13, 10.15~18
-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박 2일: 8.2(수)~3(목) / 9.16(토)~17(일)
- 3박 4일: 7.13(목)~16(일) / 7.20(목)~23(일)
- 8박 9일: 8.7(월)~15(화) / 9.4(월)~12(화)
- 40일: 10.4(수)~11.12(일)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선하고 즐거운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자

아버지 세미나

■ 일시: 7.15(토) 14:00~16:00 ■ 수강료: 3만원
■ 대상: 성인 남성 ■ 강사: Fr. 원형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문의: 519-0492~4 <https://edu.cup.ac.kr>

부산성모병원, 호흡기질환 치료 우수병원으로 선정 -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적정성 평가 6년 연속 '1등급' 획득!

다학제 협진을 통한 환자중심 진료 제공

만성화 된 호흡기질환, 부산성모병원에서 치료하세요. 문의: 933-7242(호흡기내과)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11, 13, 15, 17시

051.441.3500 스텝 특전 제공
catholicwedding.kr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올리브피부과의원</p> <p>피부과전문의, 고려대학교 피부과 외래교수 원장. 조재영 (레오나르도)</p> <p>리프팅,기미,잡티,검버섯,여드름,백반증 주름제거,건선,다한증,피부질환치료</p> <p>역전동 뉴코아역 6층 331-3344</p>	<p>뉴욕초이스치과</p> <p>임플란트, 심미보철, 틀니 미국임플란트전문 의 치 의 학 사 최 상 중</p> <p>866-2806, 2807</p> <p>지하철 연산역 5번출구, E메디컬센터 5층</p>	<p>우리자동차매상사</p> <p>자동차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p> <p>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국산차, 수입차 구매 상담) 조정연(엘리야) 010-9333-4784</p>	<p>(주)금정소방</p> <p>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p> <p>조진호(보나벤티라) 514-0119 010-8516-0119</p>	<p>라이프치과의원</p> <p>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철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재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찬아(요한 금구)</p> <p>743-3334</p> <p>해운대역 1번 출구 280m(세이브존 후문)</p>
<p>가톨릭트래블</p> <p>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파티마 성지 순례포함 9월 17일(519만원+1800유로) www.catravel.co.kr 070-4086-0207</p>	<p>이삿집은 우리트렌스</p> <p>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p> <p>582-1414 010-4042-8662</p>	<p>눈시원안과</p> <p>이현석(분도)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배내장, 노인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p> <p>631-6622</p> <p>법내골목 2번 출구 앞 제2향운병원 4층</p>	<p>미카엘여행사 성지순례</p> <p>제주도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7.17~19, 7.24~26, 8.7~9, 8.14~16</p> <p>한국 성지순례 7.27~30 원주, 춘천교구 4일(부산 대구출발) 8.17~20 대전교구 4일(부산 대구출발)</p> <p>010-8650-9690 정성훈(미카엘)</p>	<p>독일보청기</p> <p>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식카드소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인90%혜택)</p> <p>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클라라) * 교유 특별 할인 *</p> <p>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명 4, 6번 출구(이중, 빨간색 건물)</p>